김별아 소설《미실》

천년이 넘는 세월을《화랑세기》에 갇혀 있었던 여인 '미실', 색공과 무소불위의 권력다툼만 부각 아쉬움

글_송수경

《미실》김별아 지음 | 문이당 | 348쪽 | 값 9,500원

아직은 양지바른 산자락을 따라 핀 각시붓꽃, 노랑제비꽃, 금낭화 같은 야생화의 꽃망울이 소리 없이 터지고 있는 5월이건만, 서점가는 때아닌《미실》 열풍으로 뜨겁기만 하다. 김별아의《미실》은 출간 2개월 만에 국내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판매부수가 4월 말 집계 10만 부를 넘어섰다. 국내 최고 상금 1억 원을 내건 제1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당당하게 문학성을 검증받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에서 작가에게 더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과 영상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두꺼운 독자층을 형성하면서 출판계에 새로운 흐름을 주도해 왔다. IMF지원체제 이후 독자들의 관심은 경제서나 처세술 등 실용도서에 집중되었고 그것들이 앞 다투어 베스트셀러 목록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 시대의 문화트렌드와 정서, 당대 독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욕구가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당대

지난 5월호 '뒤집어보는 베스트셀러-《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기사에 대해 해당 출판사인 위즈덤하우스는 내용의 오류가 있음을 들어 정정과 사과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본지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독자 여러분에게 좀더 객관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즈덤하우스 측의 반박과 해명을 원문 그대로 싣습니다. 외부 원고의 특성상 게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세세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점 해당 출판사와 독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출판사에 대해 어떠한 작위적 의도나 불순한 저의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출판사측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출판저널〉 편집부

◉

반박문(위즈덤하우스)

"아니나 다를까 동아일보05.4.13는《다 빈치 코드》를 밀어내고 9주 연속 판매 1위를 차지한《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가 짜깁기 책자임을 보도하고 있다. 3분의 2는 지은이가 직접 집필했지만, 나머지 15편은〈리더스다이제스트〉한국판 등에 실린 글들을 출처 표기 없이 재수록했다는 점이다."

위 기사의 "나머지 15편은〈리더스다이제스트〉한국판 등에 실린 글들을 출처 표기 없이 재수록했다는 점이다"는 분명한 오류입니다. 이 책에 실린 글은 편저자인 탄줘잉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 출판사는 탄줘잉의 허

의 베스트셀러다.

그렇다면 김별아의 《미실》이 베스트셀러로 떠오른 오늘의 문화트렌드는 무엇일까. 웰빙이나 퓨전문화의 범람은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장을 하는 예쁜 남자와 복싱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하며 땀 흘리는 여대생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만 않다. 전문적인 여성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에서는 정치, 기업, 공직, 비영리 기구 등 네 개의 축으로 특성화 하여 맞춤형 여성리더를 교육하고 있다. 정치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선거에 대비한 전략 수립부터 출사표 내용과 전달방식, 정책협상을 교육하고 기업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리더십을 분석해 주고 커리어 코칭을 해준다. 즉, 기득권자인 남성과의 경쟁에서 리더로서 살아남는 방법을 전수시키는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가 1학기 '현대사회와 리더십' 강의를 듣는 수강생 36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4퍼센트가 여성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에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돈 버는 아내와 살림하는 남편이 새로운 부부상으로 떠올랐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기러기아빠가 자살을 하고, 성희롱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버린 남성들이 '남성의 전화'를 붙들고 우울증을 하소연하는 세상이 되었다.

전통 유림세력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은 호주제 폐지의 기정사실화는 한층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노동부는 올해 여성의 고용평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를 독려하고 산전후 휴가비용의 국가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소비자를 움직이는 일이다. 이는 경제 흐름의 적지 않은 부분이 여성의 손아귀 안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는 손자병법의 방책, 또는 "난 누구와도 같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실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는 사실 색공이라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비추어 볼 때, 절대 권력이었던 3명의 제왕과 젊은 화랑들을 자신의 발아래 두고 천하를 가슴에 품었던 신라의 여인 '미실'이 1,500년의 세월을 간단히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어온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고 《미실》의 성공이 오직 이러한 사회현상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동안 작가가 발표한 《내 마음의 포르노그라피》 《개인적 체험》 《꿈의 부족》 등에서 보여준 작가적 역량은 《미실》에서도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잘 익은 매실처럼 싱그럽고 감칠맛 나는 묘사와 한 순간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게 서사를 끌고 가는 작가의 힘은 당차고 호방하기까지 하다.

"문학은 내게 무언가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고 당선소감에서 밝혔듯이 작가는 뜨거운 열정과 치열하게 담금질된 삶의 체험을 녹이고 정제하여 자신의 작품에 순금의 결정체로 남겨 놓았다. 이러한 작가를 두고 '문학을 개인적 유희와 사회적 소비품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려 한 작가'라고 평한 어느 평론가의 말은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다.

락 하에 책 내용을 선별하여 49가지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49가지 이야기 중 단 2편만이 〈리더스다이제스트〉의 글이고 이는 편저자인 탄줘잉이 직접 인용한 글로 〈리더스다이제스트〉의 한국어판이 아닌 영문판이나 중국어판을 활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출판사가 〈리더스다이제스트〉의 한국어판을 활용한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니며, 출처표기에 대해서는 한국 〈리더스다이제스트〉와 이미 협의를 해서 상호 양해를 한 부분이며, 나머지 글도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여 재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본 독자들에게 이 책의 대부분 글이 〈리더스다이제스트〉 한국어판을 인용할 걸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한 오류이고 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에게 이 책이 엉성하게 짜인 책으로 혼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는 편저자가 엄연하게 존재하며 그분의 생각과 철학에 맞는 글들을 책에 엄선하여 실었습니다. 저희 출판사 역시 이 책에 심혈을 기울여 한국 독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글을 선별하여 그림과 함께 편집을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연출은 책의 부피나 편집에서도 감지된다. 책은 4×6판 214쪽이지만, 중간 중간 끼어 넣은 삽화 및 본문 발췌 부분들을 빼면 채 200쪽이 안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집도 아닌 에세이집으로서는 분량 미달인 것이다. 아마 직접 쓰지 않은 15편의 글들을 굳이 집어넣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독자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감동을

그러나 문학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미실》에 대해 전혀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작가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지 않은 글들은 문학이 될 수 없다는 그녀의 신념과는 달리, 오직 사료나 연구서에 의지해서 1,500년 전의 역사 속 인물을 끄집어내야 했던 작가의 고민이 결코 가볍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지나치게 역사적 자료나 연구서에 매달려 숨 가쁘게 쫓기듯 달려간 느낌이 있다.

《미실》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필사본《화랑세기》는 540년에서 681년까지 있었던 신라 화랑 풍월주 32명의 전기를 담은 책으로 왕실의 근친혼에서 동성애, 분방한 성풍속과 권력, 음모를 둘러싼 왕족들과 화랑들의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진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작 가능성과 그 진위에 대한 논쟁이 10년이 넘도록 진행중이다. 그러므로《화랑세기》속에 숨어 있었던 '미실'의 존재는 역사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롭게 다가설 수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작가는 왜《화랑세기》속에 그려진 미실의 행적으로부터 좀더 자유롭게 다가서지 못했을까.

진흥왕과 그의 아들 동륜태자, 동륜태자의 동생인 금륜태자25대 진지왕, 동륜태자의 아들인 진평왕 등 할아버지에서 손자에 이르는 세 명의 임금과 태자,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 사다함을 비롯한 세종, 설화랑사다함의 동생, 미생랑미실의 남동생 등과 색공의 관계를 맺으면서 숙적인 진골 정통과의 권력다툼에 치열하게 매달렸던 미실의 행적을 좇느라 독자들은 숨 돌릴 틈이 없을 것이다. 복잡한 계보를 따라잡아야 하고, 그 많은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파고드는 일도 벅차다.

"이길 수 없는 자는 지키고, 이길 수 있는 자는 공격한다"는 손자병법의 방책, 또는 "난 누구와도 같지 않아. 나는 나야.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실이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녀는 사실 색공이라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았다. 색공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것을 모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오직 색공의 여인으로서 권력을 도모했던 고정된 미실의 한 면만 부각되었다는 안타까움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또한 미실을 역사적인 사료史料의 틀 안에 고정시킴으로써, 탁월한 묘사와 역사를 꿰뚫어 현대에 생생하게 재현해낸 참신한 안목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창의적인 재해석과 상상력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

그럼에도 2005년의 우리 가슴 속에 물앵두처럼 영롱하게 새겨진 그녀는 출판계와 서점가를 뜨겁게 달구면서 천년의 역사와 시간을 찰나로 가뿐히 넘어서 있다.

◉

이 글을 쓴 송수경은 2001년 〈문학사상〉 소설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나왔다. 2001년 대산문화재단 창작기금지원자로, 2005년 문예진흥원 창작지원금지원자로 선정됐다. 장편《꽃이 있는 풍경》을 냈으며, 〈만월〉 〈나팔꽃〉 〈레인보우 피시〉 〈하루〉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인 도서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이 책을 함량 미달로 평가한 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맞추어진 것으로 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에세이집의 함량 충족 조건이 공식화되어 있습니까? 페이지 역시 오류입니다) 아울러 수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자칫 편협해보여 이 책을 통해 감동과 새로운 삶에 대한 용기를 얻은 독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의 교묘한 '기획력'(그러니까 상술이다)으로 '뜨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을 동원한 자사 책사들이기 등 오죽했으면 일간신문에서의 베스트셀러 집계발표가 사라져 버렸을까!"

위의 글 역시 이 책을 이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마케팅 방법으로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른 책들과 한데 엮으면서 이 책의 순수 판매에 대한 부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오류입니다.

베스트셀러를 새로운 각도에서 평가하는 기사의 기획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기사는 이 책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받은 감동을 치기어린 것으로 평가절하하며 책의 저작자와 이 책과 저희 출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며 오류 기사를 내보낸 점에 대해 정정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위즈덤하우스